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길을 찾아서”

— 상생시대의 지역공동체와 청소년활동의 방향 —

|일시|

2011. 11. 24 (목) 15:00 ~ 18:00

|장소|

교보문고 광화문점내 배움아카데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청소년활동, 길을 찾아서”

- 상생시대의 지역공동체와 청소년활동의 방향 -

1. 목적

청소년현장을 비롯한 각 분야 및 관련 전문가(기관)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계의 현안 점검과 대안 마련을 통한 청소년계 역할 강화

2. 개요

- 주 제 : “ 상생시대의 지역공동체와 청소년활동의 방향 ”
-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15:00 ~ 18:00
- 장 소 : 교보문고 광화문점 內 배움아카데미(종로구 종로1가)
- 대 상 : 청소년지도자, 학자, 공무원 등 50명
- 참여방법 :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 teps0101@kywa.or.kr로 제출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페이스북에 댓글 달기
- 담 당 자 : 창의활동지원실 김태엽 Tel. 02-330-2844

3.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5:00~15:10	○ 개회
발제	15:10~16:40	○ 사회 : 이진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창의활동지원실장) ○ 발제 1(30분)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발제 2(30분) - 최순옥(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대표) ○ 발제 3(30분) - 이서경(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과장)
현장 토론	16:40~17:40	○ 발제자와 참가자의 자유토론
폐회	17:50	○ 폐회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 찬 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 찬 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왜 학교 밖인가?

- (1) 패러다임의 전환
- (2) 지역사회의 교육적 의미
- (3) 경험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

2. 지역 학습 자원 네트워크

- (1) 유기적인 연결망으로서의 지역
- (2) 생활의 과제를 학습의 계기로
- (3) 고립된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3. 마을만들기와 평생학습

- (1) 세대를 넘어 나누는 배움의 즐거움
- (2) 마을 속에서 학습공동체를

4. 길 찾기를 위하여

- (1) 실행을 통한 학습
- (2) 인턴십의 의미와 관건
- (3) 노동에서 배우는 것

5. 마무리

1. 왜 학교 박인가?

“가령 한 소년에게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떤 교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식의 흔해 빠진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강의되고 실습되지만 삶의 예술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세계를 관찰하는 법은 교습되지만,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화학은 공부하되 자기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 가는 배우지 않으며, 기계학은 배우되 빵을 어떻게 베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해왕성의 새로운 위성은 발견해 내지만, 자기 눈의 티는 보지 못하며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방울의 식초 안에 있는 괴균(怪菌)들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주위에서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자신이 잡혀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음 두 학생 중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발전해 있을까? 즉, 한 학생은 자기가 캐어낸 쇠붙이를 녹여서 주머니칼을 만들되 그러는 중에도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으며, 또 한 학생은 대학에 나가 광물학 강의를 듣되 아버지로부터 ‘로저스 표 주머니칼을 선물로 받았다면 말이다. 둘 중에 누가 더 손을 잘 베이겠는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내가 재학 중에 항해학 과목을 수강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차라리 내가 배 한 척을 직접 몰고 항구 밖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갔더라면 항해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가난한 학생들까지도 정치 경제학만을 공부하고 강의 받고 있으며, 철학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생활의 경제학은 대학에서 진지하게 가르쳐 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학생이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경제학 서적을 읽는 동안 그는 자기 아버지를 헤어날 수 없는 빚 구렁이에 몰아넣고 마는 것이다.”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중에서--

(1)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화는 한 마디로 말해 삶이 생산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는 한편으로 거대한 공적 영역으로 집약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소한 사적 영역들로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학교는 공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훈련시켜 제공하는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근대교육은 청소년들을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 수용하는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활동은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한데로 집결시켜 독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근대 이전의 모든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족과 지역에 동시에 소속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부모처럼 훈육하였고, 그러한 관계를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부모 - 자녀 관계가 가족 단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른들 일반'과 '아이들 일반' 사이에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우리처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진 사회에서는 사실 그다지 낯설지 않다.

근대사회는 그러한 지역의 자율성을 해체하고 국가 단위에서 사회를 재편성하는 거대한 '헤쳐 모여'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 사회의 경쟁력은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가동시키느냐, 그리고 그 노동력의 질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근대 생산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기능을 얼마만큼 빨리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체득시키느냐가 그 사회의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핵심 목표였고, 한국사회는 이점에서 성공한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는데 점점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가 단순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이나 대처 방식이 뚜렷한 몇 가지 유형으로 매뉴얼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 표준화된 코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안목이다.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유용한 것을 선별하여 조합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창발력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현실과 단절된 채 추상적 기호들만을 입력시키는 기존 교육의 한계는 자명하다.

(2) 지역사회의 교육적 의미

근대 사회는 학습이라는 행위를 노동과 놀이로부터 분리시켰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산 활동을 관찰하거나 체험하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채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들만 머리 속에 주입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라는 제도가 부과하는 지식은 유희적인 성격을 배제한 채 강한 인내력을 요구하는 고역스러운 두뇌 활동 쪽으로 치우쳐버렸다. 그 결과 얻어진 지식은 삶에 그다지 유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움과 발견의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닌 딱딱한 데이터에 불과하다. 지금의 학급 붕괴는 그렇듯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지식을 강요당하는 학교와 온갖 현란하고 자극적인 오락으로 넘쳐나는 소비 사회 환경 사이의 간극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학생으로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한편, 대중문화 및 도시 공간에서는 소비자로서 욕망의 주체가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침없는 소통의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영역일 뿐이다. 참여를 통해 스스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자로서는 특권을 누리지만 생산자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회는 너무 빈곤한 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처지다. 그 결과 특정한 지적 능력은 발달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꾸러가는 능력은 현저하게 빈약하다. <성적>에 연연하여 <성장>을 간과하고, <학력(學歷)>에 매달리느라 <학력(學力)>을 소홀히 하며, <진학>에만 전력하는 동안 <진로>는 뒷전으로 방치한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 문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근대는 역사적으로 보아 매우 예외적인 시기였다. 근대 이전의 모든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족에 소속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소속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부모처럼 훈육하였고, 그러한 관계를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환경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배워 가는 텍스트요 교실이였다.

지역사회로 교육 공간을 확대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학습과 놀이와 노동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행위 속에서 탁월하게 성취된다. 여가 행위는 그렇듯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대를 넘어 선배나 어른들과 만나고 삶과 사회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경험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고뿐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도 현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에 대한 감수성과 통찰력이다. 그러한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양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학교 공부는 책으로 정리된 지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인간은 직접 상황에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특히 아이들은 왕성한 호기심과 유연한 두뇌 덕분에 세상과 교섭하면서 스스로 지적 능력을 키워가는 데 탁월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브라질의 대도시에는 길거리에서 관광객이나 행인들에게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린아이들 (street children)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산수 문제는 잘 풀지 못하면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산수 지식은 매우 정확하게 체득하고 있다고 한다.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연산 방식을 '길거리 산수'(street mathematics)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인도의 기술회사 NIIT에 근무하는 어느 연구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그의 회사 담벼락에 설치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들의 반응을 모니터했다. 그 바깥쪽은 빈민가였는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도 받지 않고 영어도 알지 못하면서도 몇 주일 내에 컴퓨터 사용법을 스스로 터득해냈다. 이 실험으로 사회 혁신상을 받은 그 연구원에 따르면 10만개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면 5억명의 인도 어린이들이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초로 '최소간섭 교육' (Minimally Invasive Education)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의외로 풍부하게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학습 자원 네트워크

듣는 것으로는 잊어버리고 만다. 눈으로 보면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이해한다. -- 중국의 격언 --

(1) 유기적인 연결망으로서의 지역

‘동네에서 세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 안에는 세상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 집약된 연관성과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물과 존재들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제과점을 들어보자. 그 안에는 농업과 유통, 생물학과 화학, 경영과 디자인 등 여러 전문 영역들이 얽혀들어 가 있다. 따라서 제과점 주인은 적어도 빵에 관련된 한에 있어서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 살아있는 지식은 흥미로운 교과목으로 각색될 수 있다. 제과점은 하나의 멋진 교실로 바뀌고 주인은 훌륭한 특강 교사로 변신할 수 있다.

제과점뿐이겠는가. 문방구점, 음식점, 은행, 병원, 소방서, 파출소, 구청.....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일터’는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지역 경제와 금융 시스템, 보건과 복지, 도시 시설물과 재해, 행정 체계 등 세계의 제반 열개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이다. 그것을 학습의 텍스트로 인지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지역 못 대상들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다. 그 관심이 축적되고 발전하여 환경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물론 매일의 돈벌이나 반복적 업무에 파묻혀 살아가는 직업인들 가운데 자기의 일을 그러한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단한 공부야 요구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성인 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단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삶의 체험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반추하는 성찰의 계기가 주어진다.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들이 문화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는 그 자체로 학교일 수 있다. 아니 학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학교는 일정 연령 범위에 있는 아이와 청소년들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함께 배워 가는 교실이다. 가령 어머니는 아이와 같이 음악이나 미술, 연극 등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특별한 학교가 없이도 도시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아테네를 모델로 한 지역 학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테네뿐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근대 이전까지는 지역 사회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 자치라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그러한 기풍과 활기가 생동해야 한다.

(2) 생활의 과제를 학습의 계기로

지역이 배움의 현장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거기에 맞물려 환경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재활용 운동이 확산되어 왔다. 녹색가게 같은 공간도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학습이나 놀이와 결합되어 이뤄질 수는 없을까? 공방(工房)을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고장 난 물건을 사용하던 소비자(주민)들이 직접 와서 수리를 하되, 거기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공방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로써 '제작 본능' 내지 '장인 정신'(craftmanship)이 있는데, 그것이 산업사회에서는 거의 사장되고 있다. 공방은 그러한 잠재 능력을 일깨우면서 거기에 배움과 교류의 즐거움을 가미시키는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학습의 기회가 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 하나 하나가 현대 문명의 결집체이다. 거기에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복잡한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매개하고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을 구성하는 물건의 세계는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재활용 운동이 물건을 다루는 공동의 활동이라면, 그것은 허드렛일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폭넓고 짜임새 있게 들여다보는 창(窓)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재활용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급되는 물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어떤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그

러한 소비 패턴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버려지는 물건들 가운데 일부의 기능을 바꾸어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패션이나 일시적인 붐을 타는 오락 기구들은 고안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물건으로 재생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학 교실 같은 것을 재활용 과정에 결부시킨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이 버거울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여가의 궁극적인 보람은 자기의 실현이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어른과 아이들이 만나고 함께 배워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문화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여가가 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여가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소비적 성격을 갖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서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면서 관계를 복돋아 가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쁨으로 여가 행위를 건강하게 가꿔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를 중요한 학습 공간으로 다시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담을 헐거나 과감하게 낮추고 세계 그 자체를 통해 사물을 배워 가는 방식을 통해 기존 학습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안에 학습의 대상이 대단히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교육의 자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전망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또 다른 예를 보자.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는 '과학 상점' (science shop)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학이 개발하고 축적해 가는 지식을 시민과 사회 단체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경 단체는 과학 상점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 부담 없이 과학적 주장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환경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어느 동네에서 집집마다 가솔린 냄새가 심해서 피로우니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화학을 전공하는 자원 봉사자와 석박사 과정의 스태프 팀을 이뤄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그 결과 오래된 주유소의 지하 탱크가 그 원인임을 밝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방 정부가 토질 개선 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사 활동과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물이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기도 한다.

(3) 고립된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맞벌이 부부와 해체가정이 늘어나면서 '나 홀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면 이웃집 어른이 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지만, '동네'가 사라진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 또는 학원에 가지 않으면 모두 외톨이 신세다. 빈곤지역에서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탁아 운동이 일어났고, 그와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부방'이라는 것도 출현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로 헌신해온 교사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성장기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한 교육 복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고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빈곤 가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도 고립된 채 생활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일과가 어머니에 의해 치밀하게 관리되고, 그나마 자유로운 시간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몰두하느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사회'를 잃어버린 채 성장한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아예 두문불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히키코모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가출'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체의 대인관계를 거부하고 칩거하면서 부모에게 얹혀사는 이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간다면 어떤 삶을 꾸리게 될까. 이는 그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는 그런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집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핵심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인데, 구체적으로는 마을 공간에서부터 타자와의 접점을 찾도록 지원한다. 히키코모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꾸리거나, 동네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보육소에서 봉사하면서 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는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폐쇄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최대한 접촉할 수 있도록 일상과 공간을 구조화한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왕따, 교실붕괴, 원조교제 등 일본의 청소년 문제를 몇 년의 시차로 비슷하게 경험해온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마을만들기와 평생학습

(1) 세대를 넘어 나누는 배움의 즐거움

가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유아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느끼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진지하게 천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매우 표피적인 이미지와 상투적인 메뉴들로 볼거리를 대충 만들어 내보내는 영상에 아이들도 금방 식상해 한다. 그 단적인 예로 한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른들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한결같이 빼에로 형상이다. 뿔빵바지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나와 아이들 말투로 이야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어른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억지로 유치해져야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면 정반대로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는 방식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세대를 넘어서 소통하는 언어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그대로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왜 어른이 어른 모습 그대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하는가. 어른 대 아이가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가. 어른과 아이가 친구로 사귄 수 없는가.

평생학습은 어른과 아이들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어른 뿐 아니라, 학생의 신분엔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도 더 풍부한 배움의 장을 열어준다. 지금 학교 바깥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와 집과 학원 이외의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마당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시설이나 예산이나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콘텐츠?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들이 차고 넘친다. 또한 입시에 매여 있어서 다른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핵심은 사람이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어른들이 없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초인적인 학습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 한 마

디로 어른들이 문제다.

학교 바깥에서 청소년들이 배움의 역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그 파트너로 나서주어야 한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사회 전반에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풍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학습이라는 것이 공공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문화회관, 과학관 등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배움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확대 재생산되는 터전이다. 거기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은 나이의 장벽을 넘어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 지역의 오케스트라에서 70대 할아버지와 열 살 소년이 함께 연주한다. 세대를 가로질러 공유하는 언어와 문화의 유산은 곧 지식사회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언젠가 일본의 과학관을 들렀을 때 부러웠던 점도 바로 그것이었다. 자원봉사로 안내하는 할아버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매우 상세하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인데도 여러 질문들에 척척 대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특정 코너만이 아니라 각 전시실 안에 있는 모든 코너에서 대응이 가능했다. 물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몇 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그 정도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 타인과 지식을 나누려는 열정이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러한 페이스스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인프라다.

(2) 마을 속에서 학습공동체를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공간의 디자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결합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안이다. 동네의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 미래상을 함께 그리는 작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을 관찰하여 그 종류와 분포를 지도 위에 기록한다든지, 수질오염이나 소음 공해의 모니터링, 교통량 조사와 사고 위험 지역 체크, 놀이터의 안전 점검,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내기,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불편한 통행 시설 조사하기 같은 것이다. 지역 안에는 무궁무진한 테마들이 널려 있고, 그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학습 커뮤니티가 결성되어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 관청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시민으로서 주인의식과 참여 정신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예능 실력을 다듬어 동네 축제에 참여하여 발표하기, 독거노인들의 다리 주물러 드리는 자원봉사, 마을의 자연 환경 관찰 등이 그것이다. 부모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핵심적인 일과로 정착된 '나들이'나, 대안학교들에서 활발하게 실험하는 '인턴십'도 배움의 장을 확장하는 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이웃 사이에 어른과 아이들이 배움의 인연으로 맺어지는 동네가 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공동육아를 토대로 마을만들기를 벌여온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유기농산물의 공동 구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기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동네부엌], 자동차 수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성미차병원], 누구나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카페 [작은나무],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동아리 활동이 있다. 아동과 성인 대상의 살사댄스 동아리, 풍물패, 아빠들의 밴드 동아리, 영상동아리, 사진동아리, 연극동아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성미산학교 아빠들과 동네 아이들과 하는 축구를 하는데, 이 동네 공동육아 출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동네에서는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저마다 '끼'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춘기 청소년들이 정신과 몸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것은 [우리마을 꿈터]라는 학습 공간, 그리고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의 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성미산마을 배움터'가 그것이다. 생협이 부설로 세워져 수익자 부담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독립한 [우리마을 꿈터]에서는 택견과, 자전거타기, 축구교실이 열린다. 그리고 [성미산마을배움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요가, 애니메이션, 노래, 사진, 요리교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바느질, 풍물, 가야금, 민요, 미술치료, 한국무용 등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교사가 되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려 매우 낮은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좌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방학 전에 강사를 모집하는데, 지원서와 강좌의 내용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생협에서 주최하여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계절마다 생산지에 견학을 가서 여름 농촌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생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사(주로 학부모들)를 모집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환경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먹을거리나 생태에 관한 조합원 대상 열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카페 [작은나무]에서 열리는 수요음악회는 아마추어의 공연을 어른과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캔들 나이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바느질도 하고 밀랍 초를 만들기도 한다.

환경 운동을 꾸준히 해온 어느 주부의 경우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열심이다. 그는 컴퓨터 게임에 너무 몰두해 걱정을 하는 부모들과 함께 공방을 만들었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뭔가 다른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방에서 벌이는 프로젝트는 다채롭다. 예를 들어 보드게임 방에 가서 직접 놀이를 해보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본다든지, 동네에 버려진 개들을 위해 개집을 만들어주기 또는 꼬마 아이들을 위한 인형 만들기 같은 것이다.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하학적인 계산법을 원용하고 드릴 사용법을 익히는 등 여러 가지 학습이 이뤄진다.

성미산마을의 교육 공동체가 어른들끼리 자족하는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안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기존의 교육 방식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대안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소신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부모들이 능동적으로 함께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지역의 교육 자원으로 변환시켜내는 힘이 성미산 마을 교육공동체에 존재한다. 학습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가꿔가는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온 한정된 경험과 매우 협소한 세계관에 아이들을 가두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린다.

4. 길 찾기를 위하여

(1) 실행을 통한 학습

대학은 물론 초중등교육에서도 현장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된다. 인간의 지성은 어떤 구체적 상황에 부딪혀 더욱 예리하게 촉발되는 면이 있는데, 그 차원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배제한 채 평면적인 지

식을 암기하고 획일적으로 테스트했기에 고학력 무능력자들이 양산된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프로그램을 정규 커리큘럼의 틀 안에서 설계하고 추진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의 장래 직업과 관련하여 의미가 깊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직업 교육이나 진로 지도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접맥될 수 있는가.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미 직업세계에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 크게 나눠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업 청소년이다. 가정 형편상 생계나 학비 벌이에 나서야 하거나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 교육이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학업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밝은 이미지가 아니다. 반듯한 가정에서 태어나 착실하게 공부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달리, 불량하거나 불우한 청소년들이 실업계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중도에 직업의 세계로 나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훌륭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지만, 사회는 이미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중학교 무렵부터 자신의 직업적 소양과 자질을 발견하고 꾸준히 능력을 키워야 한다.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의 과제가 요구된다. 첫 째는 직업세계의 지형과 그 변화의 트렌드를 개괄적으로 조감하는 것(mapping), 둘째는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성찰하면서 그 직업 세계 안에서 어느 영역을 겨냥할지를 가늠하는 것(positioning), 셋째는 그러한 직업을 얻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과정을 밟아야 할지 전략과 경로를 짜는 것 (tracking)이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인 과제이면서 내용적으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순환되어야 한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성공하였는지, 그 쪽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EBS 프로그램에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훌륭하게 제작되어 오랫동안 방영되어 왔는데, 거기에는 각 방면의 장인들이 나와서 매우 생생하게 그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모두 다시 볼 수 있으므로 잘 엮어내면 매우 효과적인 커리큘럼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보의 제공은 딱딱한 데이터의 형식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막연하나마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떤 수순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과 소질

이 적합한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자 정했을 때 그를 위해 필요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인턴십의 의미와 관건

그런 취지에서 여러가지 인턴십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소년의 직업 인턴십을 지원해 왔지만, 그 인턴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어떤 분야를 확정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 **이전에** 현장을 탐색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일 직업체험이나 밀착 참여 관찰 (job shadowing)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선진국의 학교교육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다. 멘토는 학교 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점들을 세밀하게 코칭하면서 그 계통으로 인생 항로를 펼쳐가기 위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체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다. 멘티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른바 '직업윤리'는 거기에 어떻게 결부되는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인턴십의 성패는 학교 바깥의 학습 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외부 인사를 초빙하거나 멘토를 찾아 학생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와 달리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특히 학교와 학교 바깥 사이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 현장 자체에도 인턴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여러 직업 현장에 많은 '프로'들이 있지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교육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매우 박약한 실정이다. 앞으로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일의 세계가 학습의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과 현장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 쪽 방향으로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mentor)가 되어줄 어른들을 찾아내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적 의지를 지닌 직업인을 찾아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를 찾아 그러한 의지를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턴십은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그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학교 바깥에서 전혀 새로운 학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리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요리사에게 배운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멘토를 찾아내 접촉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과

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할 것인가, 학생과 담임교사와 멘토 사이에 이뤄지는 소통을 어떤 틀로 담아낼 것인가 등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멘토의 의무 또는 금기 사항은 무엇인가, 멘토의 수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듯 뭔가 질서정연하게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 학습을 해갈 때 청소년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학습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인턴십을 주관하는 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과 능력이 요구된다.

- *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적절한 멘토를 연결하는 것
- * 멘토가 기꺼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
- * 작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인턴십 학습을 기획할 것
- * 인턴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것
- * 학생이 인턴십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이끌 것

학교 바깥에서 다양한 학습의 장을 모색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실물 감각’이 아닐까 한다. 즉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맥되고, 제도 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체득해야 할지를 면밀하게 포착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얻어서 또는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연수과정에서 특정한 직업 영역에 직접 뛰어들어 낯선 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활동을 자신의 교과와 연결하여 실행한다면 한결 더 살아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활동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인맥을 키워야 한다. 그들로부터 수시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아이들과 그들을 연계시켜줌으로써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사들에게는 그러한 코오디네이팅 내지 네트워킹의 수완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다.

인턴십의 성패는 훌륭한 멘토가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부모나 교사의 입장이 아닌데도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결정적인 열쇠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굳이 선진국이 아니어도, 근대 이전에는 어른들이 모두 그러한 역할을 당연하게 떠맡았다. 전통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그 현장은 곧 사회이고 삶 그 자체였다. 거기에서 교사는 성인 모두였다. 수렵 채취에서 농경 그리고 상인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면서 그러한 관계는 서서히 사라졌고, 한국의 경우 훨씬

급격하게 소멸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속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대충 시간을 때우고 형식적으로 점수만 채워오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풍토는 왜 바뀌지 않는가. 교육당국이나 학교만을 탓할 수 없다. 교육의 능력이 거세된 사회가 결정적인 문제다. 직업이나 생활의 다양한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학습의 콘텐츠로 변환시켜내는 상상력이 빈곤이 그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른들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이 아니면, 자기 학원에 돈을 내는 수강생이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도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대해서는 눈을 까맣게 닫고 있다. 사적으로는 교육열이 뜨겁게 타오르지만 공적으로는 한없이 빈약한 교육력(力), 그것은 지식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굴레다. 어른들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다.

(3) 노동에서 배우는 것

다른 한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도 현장 학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서비스업의 규모는 어느덧 도시의 중추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거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가운데 1/3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르바이트가 오로지 용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 학습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는 업주들의 태도와 밀접히 맞물려 있다.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단순 기능으로 배치되는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청소년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업주에게도 손해가 된다. 왜냐하면 육체노동과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 자체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에서 소외된 점원이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체험은 경제 교육과 접목되어 훌륭한 학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그러한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 산업과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행하는 '비즈 스쿨'류의 프로그램에서는 '창업'시뮬레이션이나 부분적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창업이란 기발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르바이트 하는 십대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이 주인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등등. 그래서 가령 퓨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이 그 음식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손님에게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탁월한 비즈니스 마인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과 꾸준한 학습, 삶에 대한 진중한 태도, 자아와 타자를 잇는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에서 움틀 수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가 가치 생산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감수성, 말 한 마디로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가 하는 작은 일에 주인 의식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가짐 등이 거기에 요구된다. 그러한 능력은 결국 기초적 소양과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작동 시스템을 체험적으로 익힐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전망 위에서 함양된다. 일본의 <주니어 어취브먼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자질로서 사회적 적응력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동의 의미, 넓은 시야에 터한 가설의 설정력, 의사 결정력, 코스트 의식, 타인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용기,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¹⁾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특정한 직무 내용을 떠나서 직장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진로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헤아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폐해지는지,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설문이나 심층 인터뷰의 형식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교육의 콘텐츠로 축적될 수 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사실 자신의 직업 생활에 대해 자녀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부모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제는 소통의 훌륭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아이디어로서, 다양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실패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싫어한다. 실패의 경험은 은폐되거나 외면되고, 그래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된다. 걸밋에 끌려 직업을 선택했다가 실패했거나 후회하면서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헛된 꿈에

1) <http://www.ja-japan.org> Junior Achievement는 1919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경제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13개국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사업을 벌여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해 파산한 사람, 이들의 경험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을 직접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행착오가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자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일의 긍정적인 존재 양식이다. 일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표출하고,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일을 통해서 '아, 바로 이런 게 사는 것이지'라는 느낌으로 충만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무엇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행복감에서 왜 편차가 나타나는지, 평범한 일을 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들에게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보상 이외에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는지 등을 조사해보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듯하다.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서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이나 알 지니의 [일이란 무엇인가]가 참고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어른들도 매우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숨 가쁜 스피드로 내달리는 어른들에게 자신의 직업 세계를 성찰하는 담론은 생소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있는 이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타인들을 통해 인생을 대리 체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저마다 특유한 애환이 서려 있겠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임을 발견하면서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눈이 열릴 수도 있겠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식하지만 대화는 점점 박약해지고 지식은 자꾸만 빈곤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공적 영역의 담론은 전문화되고 딱딱해지는 한편, 사적 세계의 레토릭은 웅색한 골방에 갇혀 있거나 허망하게 증발되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언어의 위기 속에서 직업의 체험을 발효시켜 삶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면 매우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세대를 넘어서 이뤄지는 교류와 만남은 한 사회가 건설하게 유지되는데 긴요한 토대가 된다. 어른들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다.

5. 마무리

세계가 지식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창조 역량이 그 사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창의성’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것은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토대를 다져가야 한다. 물리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휴먼웨어다. 그러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건설하게 구축할 것인가의 과제로 귀결된다. 사회(이는 어떤 제도적인 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만남일 수도 있다) 그 자체가 개개인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행위를 단지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지역 운영의 중심적 가치로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활동들이 재구성되고 질적으로 변화되어 문화와 정보를 낳는 모태가 되는 것이다. 한때 시골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온 마을의 잔치였듯이 학교는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스위스 어느 산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매주 한번씩 저녁때 학교 강당에 모인다. 거기에서 학교 일을 의논한 다음 연이어 동네 일을 의논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함께 합창 연습을 한다. 학부모 회의가 곧 주민회의이면서 문화적 회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규모가 작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입지 조건 속에서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의 공공적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맹모삼천’에 대해 재치 있는 해석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시행착오로 거처를 옮겨 다닌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묘지 근처에 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도록 하고, 장터 근처에 살면서 생존의 치열함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실에 접하면서 획득하는 인지 능력과 감수성이 인간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바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학교의 안과 바깥을 철저하게 분리시킨 가운데 실행되어온 근대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금, 경험을 통한 배움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열려야 한다.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제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청소년들의 성장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학교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과

업을 학교가 모두 떠맡던 시대에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나서서 책임을 나누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대, 삶의 영역, 전문 분야, 공간 등의 경계를 가로질러 만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학교 교육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입시 경쟁에 저당 잡힌 청소년들의 성장은 평생 학습의 패러다임에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학습이 시간적으로는 대학입시라는 목표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는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넘어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학습 활동을 창조해갈 어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및 친지 그리고 교사 이외에는 알고 지내는 어른이 거의 없다. 아이들이 동네의 아줌마 아저씨들을 자연스럽게 사귀고 배울 수 있다면 생각과 생활이 한결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원래 동네는 아이들이 또래끼리만이 아니라 어른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사회'의 경험은 동네에서 이뤄질 수 있다. 어른들도 혈연을 넘어 여러 아이들과 학연(배움의 인연) 그리고 지연(地緣)을 맺을 수 있다면 색다른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한 알음알이의 네트워크는 특별히 가정이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관심의 그물망이 될 수 있다.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고 나누려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마을은 언제나 새롭게 발견되어 갈 것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의 방식으로 접근해 본 청소년활동

최 순 옥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

지역공동체운동의 방식으로 접근해 본 청소년활동

최 순 옥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

지역공동체운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만들고 쌓아가는 과정이다. 20세기를 포함한 근대사회에서는 제1섹터의 원리인 법과 공공권력의 질서, 제2섹터의 원리인 경쟁과 교환이 주요한 사회운영원리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비대한 정부기구와 막대한 재정적자,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물질만능과 인간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의 만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문화풍토 등등.... 정부실패, 시장실패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21세기 사회운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자율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인 것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은 제3섹터적인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체득케 한다. 사람들은 풀뿌리지역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그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존중만이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체득하게 되며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운동이 추구하는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생활양식을 예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지난 10여년 이상 지역에서 추구해온 운동은 바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지역사회 필요한 의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운영원리가 통용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다. 예를 들면 남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 동네하천 살리기 운동, 생태기행, 환경교실 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푸른 생활환경의 실현운동이거나, 저소득실직가정결연운동, 저소득가정 무료집수리, 저소득가정아동방과후학교 등 주민참여형 지역복지운동, 어린이도서관운영, 청소년자원봉사단운영, 공동체시민교육 등 자원봉사와 시민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확산운동, 주민자치센터참여사업, 삶터가꾸기 등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들은 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운동을 중시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의 문

제, 삶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운동과 활동의 소재를 찾으며 단기적 잇슈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주민 스스로가 실천과정에서 역할을 찾도록 한다. 활동과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한다. 이런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해당사안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며 스스로 또는 계기가 되어 일상적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소모임,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은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참다운 공동체 형성에 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새로운 삶터를 이뤄가는 것이고 그런 지향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넓혀가는 일이다.

이런 인식과 방식으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개활동을 만들어내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본회의 청소년사업의 맥락이다.

우선 지역관내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알기교육과 리더십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관계맺음을 해보게 하는 경험, 자신의 취미와 희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보는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작업해가면서 '성장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계기를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접근한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네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관계맺고 있음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향심 등이 생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는 요즘 방과후, 주말 활동을 조직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고민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매개로 청소년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공부 이외의 과외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오늘날, 학점화, 시간제 이수료 많이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봉사활동인증제'가 갖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경험이라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체험 장소인 지역사회 곳곳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이해도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 고민과 대안을 생각해보게 하고, 어른들과 어울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나 선생님 이외의 지역의 어른들과 같이 소통의 경험도 해보는 과정을 찬찬히 밟게 한다. 또한 또래의 청소년들과 학교를 넘어 교류해보는 경험들, 동네를 나가면 우연히 마주치는 동료로서의 경험들을 자원봉사활동의 과정

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다.

아래의 글은 본회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마을학교-세움터활동'에 대한 소개글이다.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될 아름다운 아이들

강양숙(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사무국장

자원봉사, 서로 다른 꿈을 꾸다!

자원봉사는 사회성숙의 하나의 큰 흐름이며,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자원봉사점수를 일정 이수해야 하는 교육제도로 이미 정착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 보다는 일회성 행사참여나 학교에서 단체로 형식적인 출석 중심의 시간 채우기 등 자원봉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단체에는 종종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냐는 문의 전화를 걸어온다. 시민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고등학교의 지역연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단체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학이면 문의가 많아지지만, 아이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간이 넉넉한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의무로 하도록 되어있는 자원봉사시간을 채우려 하고, 우리 단체는 일상적인 거점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아무 때나 자원봉사를 할 만한 활동이 마땅히 없다.

특히 1회성 봉사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방학엔 우리 단체도 행사가 없는 한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청소년들이 한번 와서 하고 갈만한 일을 찾아줘야 하고, 제대로 못한 일의 뒤처리 잔업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솔직히 부담스럽고 귀찮을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매월 진행되는 저소득가정 무료집수리 사업 해뜨는집 활동현장과,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지역 아동센터 열린학교에서 교육을 미리 받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학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봉사 시간만 채우면 더 이상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학생들의 욕구는 우리 단체의 자원 활동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청소년 자원봉사 문의를 종종 거절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별 의미 없는 일들을 하면서 봉사시간을 때우고, 확

인서를 받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봉사활동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제대로 아이들을 받아 안지도 못하는 모순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더 이상 피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이 몇 년 후엔 지역에서 어른이 되고, 그들이 자원봉사 했던 건강한 경험으로 분명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데서부터 자원봉사마을학교 세움터는 시작되었다.

같은 꿈,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열린사회시민연합에는 지역중심의 풀뿌리 활동을 하는 6개 지부들이 있다. 우선 청소년 활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던 지부들이 모여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출발은 자원봉사교육을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모범을 찾아보는 데서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넘어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자는데 두었다.

2010년 강동송파, 동대문, 은평지부 청소년 사업 담당자들의 문제의식 공유에서 출발한 세움터는 1년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캠프와 현장 활동을 계획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세움터-세상을 움직이는 그루터기'의 이름으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역의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전체 기획의 큰 틀과 교육의 형식과 내용은 같이 하되,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세움터는 교육과 봉사활동, 평가와 격려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차례의 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의미,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원봉사 활동,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찾기 등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대충 그렸던 자원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하고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통하여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몸으로 체득하고, 서로 활동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찾기와 지역사회 영향력을 알게 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기획하였다.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세움터 활동>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활동 시기	추진횟수 및 시간
청소년 자원봉사 마을학교 운영	○자원봉사 마을학교 1차 교육 워크숍 - 마음열기, 교육활동과정 소개 - 자원봉사의 기본 이해, 성격유형검사(MMTIC)	6월	4시간
	○자원봉사 마을학교 2차 교육 워크숍 - 검사결과 특강 : 나의 성격유형의 특징 알아보기 - 지역전문가가 들려주는 활동이야기 : 녹번종합사회복지관(지역복지와 청소년), 생태보전시민 모임(개구리 살리기 캠페인), 열린사회은평시민회(저소득 무료집수리 해뜨는집) - 실천활동 모듬별 활동계획 세우기	7월	6시간
	○자원봉사 현장 활동 (실행) - 무료집수리활동, 유해외래식물 제거활동, 개구리 살리기 캠페인 활동, 복지관 경로식당 지원, 이웃돕기 바자회 행 사 지원 등	7월~ 10월	활동3회 (각 8시간)
	○여름방학 자원봉사 연합캠프(강동송파, 동대문, 은평 지 부 세움터 공동 활동,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 특강 ‘봉사하는자가 세상을 이끈다’(원기준 목사) - 농촌체험활동 ‘옥수수 수확하기’ - 농촌지역 주민과의 만남 - 정리워크숍 : 활동 돌아보기, 서로 격려하기, 소감나누 기	8월	2박3일
	○수료워크숍 : 발표, 평가, 후속활동계획 - 자원봉사활동 정리 워크숍 - 수료증 및 개인별 평가서, 봉사확인증 수여	11월	3시간
실천활동 보고대회	○자원봉사 참가 학생들의 발표 워크숍 (강동송파, 동대문, 은평 지부 연합) - 지역별 활동사례 발표 (지역별 우수사례 1팀) - 우수사례 시상식 - 1년 활동 정리	12월	3시간

청소년들과 품으로 만나기

우리 은평시민회에서는 고등학생 3명과 중학교 2~3학년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청

소년들을 모집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고등학교 1~2학년 3명이 3개 모둠으로 나뉘어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1차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춘기의 중심에 있는 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나름 탄탄하게 교육워크숍을 준비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더구나,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다는 발표 이후에 소위 아이들의 스펙 쌓기에 발 벗고 나선 부모님들 덕분에 자발성보다는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떠밀려 와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물론, 스스로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체 60% 정도의 청소년들은 자의와 관계없이 신청되다보니, 그 안에서 힘찬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우리가 쉽게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봉사단을 조직하겠다는 생각자체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초기 평가도 있었고, 중학생들도 이미 입시중심의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 안에서 지쳐있는 현실에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려면, 보다 정교하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교육안을 수정했다.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빨리 열고, 자신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게 활동의 성패와 연결되었다.

1차 교육에서 책상만 쳐다보던 아이들은 2차 교육 워크숍에서는 자신의 성향과 친구들의 성향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어른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모둠 활동을 통하여 조금씩 얼굴을 들기 시작했다. 세움터 활동에 대한 기대와 걱정 나누기에서는 힘들까봐, 일을 잘 못할까봐, 지겨울까봐, 위험할까봐.. 등의 이야기를 했다. 또,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환영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즐겁게 활동하는 봉사자, 짐이 되지 않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음다지기를 했다.

현장 활동에서 희망을 보여준 아이들

1, 2차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전체 다 같이 어른들과 함께 저소득가정 무료집수리 활동을 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활동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선 뿌듯한 마음이 들어있었다.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때로

는 3개 영역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활동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각자 개성에 맞는 활동 현장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두명, 덩다 힘들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힘들지만, 재밌고 즐겁다고 했다. 집수리봉사 현장에서는 오래 봉사한 전문가 어른들에게 일을 배웠고, 숙련자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참여해서 도배봉사를 전문 영역으로 하고 싶다는 기특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환경보전활동 현장에서는 단체 활동가들 못지않게 작업량도 많아, 같이 네트워크로 참여한 단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후속 활동도 같이 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다. 더불어 지역의 어른들이 늘 젊고 건강한 지역 일꾼을 기다리고, 그런 일꾼이 없는 것에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일꾼을 만들어 내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숨은 의도에서 청소년들을 잘 키워서 차 세대로 지역 리더로 성장시켜보자는 욕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아이들의 관심은 봉사시간을 몇시간을 주느냐에 있다. 당연히 일을 한 시간만큼을 준다고 하면, 좀 더 주면 안되느냐고 너스레를 늘어놓는 녀석 좋은 아이도 가끔 있다. 일을 마치고 자원봉사 확인증을 들고 가는 아이들의 얼굴은 처음 시간을 목표로 왔지만, 분명 다른 뭔가가 그들을 뿌듯하고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힘들게 일을 마치고 난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투덜거림이 있었겠지만, 돌아가는 모습에선 가벼운 발걸음이 느껴진다.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만난, 여름방학 자원봉사 캠프

3개 지부가 연합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기획한 이유는 두 가지다. 내가 활동하고 참여하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와 같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동료의식고취와 그로 인한 격려를 서로 주고 받게 하자는 생각과, 학교 다니면서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교육받고, 봉사참여 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있게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자는데 있었다. 특강을 하러 멀리 까지 와주신 원기준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셨다.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넓게 의미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말씀해주셨다.

세움터 1년 활동 마무리는.

3개 지역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각 지역에서 활동한 사례 중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은평에서는 생태환경모듬이 발표를 하기로 하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모여서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었다. 지역마다 활동한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다.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며, 질문도 하고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또, 세 개 지역에서 활동한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도 나도 감동을 받았다. 1년의 세움터 활동을 마치며, 활동이 남긴 성과를 정리하자면, 우선 참가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실천 활동을 통한 삶의 태도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처음 교육에 왔을 때의 태도와 마지막 수료식에서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또, 아이들의 관심 밖에 있던 잘 모르던 지역사회를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관심은 지역사회 애정으로 남아 다양한 형태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집수리 현장에 참여했던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정기 봉사에 나오기도 하고, 가족 모두 봉사활동에 나와 봉사자 식사준비활동, 집수리 현장 활동에서 참여하고 있는 가족도 있다. 진행자로서 세움터 활동을 마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도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란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 벅찼고, 혼자 하는 봉사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즐거웠고, 활동 속에서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고 있는 내가 더 기쁘고 보람찼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솔직히 활동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봉사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보람을 찾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며 마음이 급했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활발하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방식과 다른 이 친구들만의 코드가 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또, 아이들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데, 내가 걱정이 앞섰구나 하며 반성했다. 자원봉사시간을 많이 받아서 좋았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기도 하고, 캠프에 가서 벌레, 화장실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봉사하러 가야해서 싫었다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싫어서 다음엔 절대 안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한명도 없었다. 봉사시간을 많이 주니까 또 오고 싶다는 친구들도 없었다. 내가 더 기쁘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보람차고, 봉사도 해보니 안하면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상상했던 것 보다는 쉬워서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한 아이들도 있다. 딱,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자원봉사는 내가 더 기쁜일, 내가 다른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일, 그래서 세상이 더 살만하고 즐거워지는 일이라고 세움터에 온 친구들이 배웠으면 하는 기대에 맞는 결과였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지역의 건강한 시민으로, 일꾼으로 성장하여 민주시민으로 튼튼하게 지역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동네와 함께 한 좌충우돌 청소년 활동기

이 서 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과장)

“우리동네와 함께 한 좌충우돌 청소년 활동기”

이 서 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과장)



올해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이하 ‘꾸마’)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나 또한 ‘꾸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한지 10년이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은 입사1년차 때도 알았던 아주 당연한 진리였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위 내용처럼 ‘지역’에 대한 고민은 더해갔고 풀리지 않는 채 숙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힘이 있는지 10주년이 된 올해, 나 뿐만 아니라 꾸마에게 ‘지역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역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천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내게 던져 준 ‘상생시대의 지역공동체와 청소년활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꾸마의 10년을 정리해보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청소년기관으로 자의든, 타의든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또 함께하지 않고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말할 수 없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실무자로서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다.

지역사회를 생각 할 수 밖에 없었던 ‘꾸마’의 출생의 비밀과 지리적 위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는 부천시 내에서도 구도심 지역인 고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한국항공공사로부터 지역주민의 피해보상금을 받아 2001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꾸마’는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

로 출발하여 청소년사업뿐만 아니라 고강동 지역의 문제점²⁾ 중 지역에서 가장 요구되어졌던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증진을 위한 아동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꾸마’의 태생 자체가 지역주민의 피해보상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다보니 지역의 목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리적으로 주택가 중심에 딱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인근 지역주민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어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역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의 오정구, 고강동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시 자원동원 (인적, 물적) 이상의 의미를 갖진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청소년들을 바라 보는 지역주민과 분리시켜 청소년들만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비단 나만의 생각이고 주장은 아니다. 10년동안 진행되었던 꾸마청소년축제³⁾의 내용만 살펴보다라도 ‘우리동네’ 즉 ‘지역’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지역’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역’이어야 하는가?

‘지역’ 그 자체가 바로 청소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예전의 난 ‘지역’을 행정구역상 오정구, 고강동으로만 생각해서 프로그램참여범위 또는 프로그램 대상으로만 지역을 고려했다. 또 ‘지역과 소통해야한다’, ‘지역과 함께해야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매우 흐리멍덩한 이미지만 떠올리게 돼 명확한 상을 그리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속시원히 지역과 소통한 느낌이 들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지역’을 어떻게 정의해볼 수 있을까? 지역이란 청소년들의 모든 생활과 관련해 관계되는 사람 그리고 사물이다. 그 이유는 지역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일상의 무대인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자는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이해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을 만나야 하고 지역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관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젠, 실무자들의 업무 반경이 넓어져야 한다.)

**‘지역’ = ‘청소년의 일상(삶)과 관련된 모든 것 (사람, 사물 모두)’
‘지역을 이해한다’ = ‘청소년을 이해한다’, ‘청소년문화를 이해한다’**

2) 좁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동의 수는 많으나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이 많다는 점, 면적에 비해 인구수는 많아 즉, 인구밀도는 높으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건물을 짓지 못해 뽕뽕이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 등

3) 꾸마청소년축제 연도별 세부내용 - 첨부자료1

지역은 청소년의 배움터이기 때문이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이 있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누구든 주요 삶의 터전인 지역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아무리 지역공동체, 커뮤니티가 깨졌다고 해도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건강해야 하며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 = 청소년들의 “배움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건강해야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은 그 자체가 청소년의 삶의 터전이요, 배움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활동이 프로그램적 접근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즉, 청소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실천활동이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관의 사업은 지역을 이해한 지역 내 아이들의 삶을 읽어 기획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은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

먼저 청소년 자신들의 일상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다.

‘지역’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청소년 자신의 일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을 모아봄으로써 지역과 나와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발견해 내고 그로 인해 나의 삶이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나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지역을 만나러 가다.

‘지역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을 만난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관계(만남)를 맺음으로써 에피소드(즉 이야기꺼리)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하고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에피소드들을 건강하게 다시 풀어내보기 위해 지역을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청소년과 어른간의 접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어른들도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세대간 격차는 줄고 소통능력은 향상되고 결국, 지역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

☞ 여기서 Tip 청소년과 지역주민과 긍정적인 관계형성 방법

1. 인사하기
 2. 여쭙기
 3. 논의하기
 4. 부탁하기
 5. 감사하기
- 다산 정약용의 애민육조이야기 -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청소년들과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을 만나러 가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웬만한 흥미 있는 꺼리가 아니면... 하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활동에 있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청소년들만의 '섬'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만의 '섬'이 아닌 어른들의 '편(지지자)' 만들기

2006년도였나? 처음으로 '지역'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첫 경험이. 그 때만 해도 청소년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아 공부 못하는 날라리로 치부해버리거나 꾸마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 PC방, 노래방 등으로만 인식하는 지역분들이 많았다. 나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입시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들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어른들과 함께 만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매년 청소년축제가 거듭될수록 끝남에 대한 안도감 및 만족감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다 어느 순간 아! 청소년들만의 축제(장)가 자칫 청소년들만의 '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소년들만의 '섬'에서 탈출해 어른들에게 긍정적인 청소년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우리'편(지지)'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이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

선 (미성숙한 존재, 보호해야하는 대상)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거리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건강한 성인으로,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성장할 수 있는 순환구조 위의 내용처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환원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청소년이 바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다른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순환구조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개별 프로그램적 접근이 아닌 지역운동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관은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꾸마’는 청소년이 중심이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이 건강해야한다. 이렇듯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로 시야를 확장하여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역운동차원의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동체적 기반’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토건 국가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가자는 말을 자주 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제 관심이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청소년 역시 든든한 후원자들과 잘 늙어가는 어른들이 곁에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中 -

청소년을 이해하고 세대간 소통통로를 위해

실무자도, 지역을 만나야 한다.

실무자 자체가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통로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 의뢰,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 또한 지역과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

‘꾸마’아이가 아닌 ‘우리동네’ 아이로

올해 고강동지역은 청소년흡연문제로 떠들썩했다. 특히 ‘꾸마’의 경우 청소년흡연 및 늦은시간 소음 때문에 초인근지역주민과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잦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꾸마' 아이기 때문에 '꾸마'에서 책임져라라는 말이었다. 참 이상했다. 물론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는 '꾸마'를 이용하는 우리동네 아이인 것을. 이처럼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기를',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우리동네'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지역사회와 청소년간의 가교역할

청소년들만의 섬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지역의 접점을 찾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청소년이 직접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못된 청소년'에 '착한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도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대상층을 대상으로 청소년이해교육 실시

요즘 어른들의 대다수가 청소년들이 그룹지어 있으면 무섭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나도 고강동지역을 벗어나면 그렇다. 그만큼 이 사회가 점점 세대간의 신뢰(믿음)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세대간의 소통도 필요하나 지역 내 청소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상층부터 (예를 들면 학교 어머니회, 자율방범대, 통장님 등) 각 집단의 특성을 살려 교육을 기획하되, 좀 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으로 '꾸마'의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및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어떻게 보면 '꾸마'도 이제 막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과 만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 같다. '지역'이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년들과 지역이야기를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붙임1. 2006~2011년 꾸마 지역연계사업

년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2006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문화인프라구축 - 가로공원음악회 청소년복지연계망 구축 환경개선사업	
	가족나무심기사업	4.9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가족나무심기	
2007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역 꽃심기, 한 평 공원만들기 등	
	가로공원음악회 참여	지역음악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여	
2008년	왓따프로젝트	매주1회 체험활동으로 지역 내 성인자원을 발굴하여 청소년들과 관계 시도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제	꾸마가 아닌 지역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제	
	환경조사단	고강동지역의 문제점을 영상으로 담아 발표 (인도, 항공기소음필름)	○
2009년	왓따프로젝트 + 찾아가는 왓따	2008년에 이어 지역의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체험활동	
	환경조사단	지역 내 폐허가 된 공간을 다시 재정비하여 안락한 쉼터로 변화시킴.	○
2010년	자원봉사학교 - 감동해 UCC, 뭉뚱이를 부탁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인사하기)	지역 내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 인터뷰한 UCC 고강동에 뭉뚱이가 출현! 지역의 환경단체와 뭉뚱이를 찾으러 가다 지역 주민과 인사하는 캠페인	○
	학교연계 - 독서프로그램	인근 학교와 독서프로그램 지원	
	고강동 아동청소년관련 실무자 네트워크	고강동 지역 내 학교, 복지회관, 청소년기관, 종교기관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사례중심으로 상황공유 및 지원	
2011년	골목길프로젝트	꾸마 초인근지역 청소 및 청소년들과 관계형성프로그램	
	전설의 고향, 고리울	고강동 경로당에 게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다니며 옛날이야기 듣고 이야기책 만들기	○
	고강동 푸쳐 라이프	고강동을 관찰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의 모습 제안하기	
	학교연계 - 독서프로그램	인근 학교와 독서프로그램 지원	
	미디어놀이터	고강동지역을 돌아다니며 체험활동 미래의 고강동, 시장탐방, 동네사진전시	○
	고강동 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고강동 지역 내 학교, 복지회관, 청소년기관, 종교기관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사례중심으로 상황공유 및 지원	
	골목길 00 수레	이동식 찻집으로 청소년들이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들과 차를 나눠 마시고 관계 형성	○

붙임2 - 약10여년간 진행된 꾸마청소년축제

년도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2003	청소년문화축제“난장판”	부대행사, 각종 대회 (댄스 등) 청소년동아리공연	
2004	청소년인권축제 ‘다정한 벗들의 어울림 다벗어’	인권영화제, 인권파티(공연) 부대행사	
2005	2005 청소년어울마당 - 우리들의 일상 365! - 영상축제 Everyday!	벼룩시장, 문화공연, 영화제, 부대행사	
2006	2006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만드는 세대공감 프로젝트“그때는?! 지금은?!”	길놀이 (주변가게방문) 추억의구멍가게,70년대~현재의학교문화,놀이 문화, 동아리공연,대동놀이	“세대 공감”
2007	2007 청소년어울마당과 고리울가로공원음악회가 함께하는 “설레임 그 첫 번째 만남...”	옛날놀이,세대공감Old&New, 격동의청소년기 사진전, 추억의빵집	
2008	2008 꾸마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이 꿈꾸는 NEW 타운 우리동네”	우리동네명물Best5,우리동네이야기UCC,수 기공모,항공기소리크기체험,우리동네에사는 외국인과의만남	“우리 동네”
2009	2009 꾸마청소년축제 “우리동네이야기”	토마토와 무분양하기, 청소년들 의고강동이야기지도전시, 환경 조사단활동발표,고강동감나무집이야기, 동아리공연	
2010	우리동네에 9살 꾸마를 소개합니다.	슈퍼스타꾸마(지역의 남녀노소가함께하는노 래자랑), 행복한인터뷰,땃다!골목길미술관,금 요밥상 맛대맛, 우리동네사진전, 꾸마벼룩시 장,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2011	개관 10주년 기념 우리동네축제 “꾸마 10년! 동네와 만나다!”	부침개가 출동한다!,옥상라디오방송, 길거리반짝공연, 꾸마사진관, 꾸마 나눔 찾집운영, 골목길 00수레 (이동찾집), 꾸마송 공모전	

<붙임2. 환경조사단>



** 참여청소년 후기 **

우리 주변의 환경도 배우고 알게 되어 흥미도 있었고 신기한 것들도 있었다. 메모지로 집들을 만들어 마을을 만들어보고 또 주변의 골목길, 집 등을 찍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보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영상물 만든 것이 가장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다. 우리가 꾸마 주변의 산을 가꾸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점이 가장 좋았다. 무더운 여름에 산을 꾸미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고되고 6시간도 넘는 시간동안 산속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도 하고 안에 있는 탁상도 다시 사포질과 니스 칠도 해놓고 입구에 계단도 만들고 또 계단 옆에다가 작은 밭도 가꾸었다. 정말 몸이 힘들었다. 짜증도 나고 힘들어서 가끔 투정도 부리고 하기 싫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다 가꾸어진 숲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감탄을 했었다. 주변 분들도 한번 썩 둘러보시고 음료수까지 나누어 주셨다. 감사했고 기분도 좋았다. 우리가 변화시켜준 숲을 또 다시 영상에 담아 주변 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붙임3 - 골목길 프로젝트>



- 이건우 : 수주중학교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꾀초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 김대원 : 수주중학교 뒤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오늘 꾀초를 주우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경철 : 뒤에서 담배꾀초를 주웠는데 300개 정도였고, 너무 더럽고 힘들었다.
- 이은총 : 모자와 대원이랑 쓰레기를 주웠는데 쓰레기가 많았고, 쓰레기 보다 담배꾀초가 많았는데 줍기 힘들고 지저분하고 해서 보기가 안 좋았다.
- 신재환 : 쓰레기가 많아서 함부로 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수연 : 오늘 처음했는데 쓰레기 줍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 박은서 : 쓰레기를 줍는 것이 재미있었다.
- 김승희 : 친구들과 쓰레기를 줍고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니까 보람차고 뿌듯해졌다.
- 이해진(원디)
 -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힘이 났다. 수연이와 승희가 음료수를 돌리는데 중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설명하고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어르신들도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다.
 - 쓰레기도 열심히 줍고, 뛰어다니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아이들이 몰려다니니까 어른들의 시선이 많이 오는 것 같다.
- 임정아(보리방구)
 - 골목길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담배를 어디서 피우는지 루트를 알게 된다. 초반에는 꾸마 근처였고, 이후에는 중간 골목에 많았고, 개학 이후에는 수주중학교 맞은편 앞 빌라, 조은마트에 정말 많았다.
 - 우리가 줍는 것을 보시면서 아줌마들이 상황을 말씀해주시는데 1,2,3학년들이 모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아침, 점심, 하교길에 계속 피운다고 한다.
 - 고강동 네트워크에 가서 상황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당장 급해서 하기는 하는데, 수요일, 금요일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다.

<붙임4 - 전설의 고향, 고리울>



<붙임5 - 청소년을 위한 심야식당 청개구리>



기념으로 사진 한 컷!
나눔회에서 준비해주신 후원금도 잘 전달
받았습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어제는 평소보다 밝아진
고강놀이터에서 청개구리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하나~ 공유할게요~

"길을 가는데요 청개구리 선생님, 있잖아요~
고강아파트에 사시는 그 분, 애가 수주중학교
다닌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도와드렸어요~
저희가 가니깐~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 잘 했지요?"

한 달 동안 청개구리에서 자원활동 해주신 지역주민 정은정님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들 진한 화장에 담배도 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얼핏보면 '문제아' 같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청개구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조금은 더 친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겠구나~